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3. 9.(월) 17:00  
(지 면) 2026. 3. 10.(화) 조간

## 누구나에게 먹거리를 보장하는 ‘그냥드림’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

- 행정안전부, 17개 시·도 부단체장과 ‘그냥드림’ 전국 확대방안 논의
- 화성시 공유냉장고, 신안군 이동형 차량 등 지역별 우수사례 전국 전파

-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‘그냥드림’ 사업의 전국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·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‘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회의는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할 든든한 ‘먹거리 안전망’을 전국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### <소득 심사 없는 ‘즉시 지원’, 푸드뱅크 인프라와 민간 협력 결합>

- ‘그냥드림’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,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제공하는 사업이다.
- 먼저,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업 현황과 함께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,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과 연계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
-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민관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.

## <화성시 ‘공유냉장고’, 신안군 ‘이동형 차량’ 등 우수 모델 공유>

-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우수 사례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.
  - 경기도 화성시는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‘화성형 공유냉장고’를 운영 중이며, 현재 5개소인 운영 지점을 올해 12월까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 32개소로 차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.
  - 전라남도 신안군은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‘이동식 그냥드림카’를 도입했다. 식품과 생필품을 신고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지원 창구를 운영해 물리적 거주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았다.
- 이어서, 그냥드림 센터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민·관 협력 확대 방안,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점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.
- 김민재 차관은 “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한층 더 촘촘하고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
  - “정부 역시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지방정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자치혁신실<br>자치새마을협력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종옥 (044-205-346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엄수빈 (044-205-3128) |

